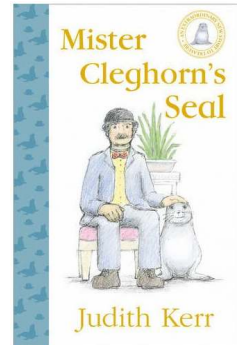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MISTER CLEGHORNS SEAL
가제 : 클랙혼 씨와 아기 물개
저자 : Judith Kerr
출판사: HarperCollins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5년 9월 10일
분량 : 9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아동 문학의 아이콘, 주디스 커가 직접 연필로 그린 따뜻한 그림과 함께 40년 만에 발표한 동화

앨버트 클랙혼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원래는 벌써 가게에 나가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정신 없을 시간인데, 가게를 팔고 나니 이제 하루 종일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가게를 팔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까지 된다. 그런데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다. 바닷가에 사는 사촌 윌리엄이 안부를 전하면서, 언제 한 번 놀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윌리엄은 클랙혼 씨에게 매년 이렇게 초대할 했지만, 그 동안은 가게 일이 바빠서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아파트를 살고 닦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어진 클랙혼 씨는 이번에는야말로 여행을 가야겠다고 결심한다. 신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클랙혼 씨는 윌리엄 네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기차역에는 윌리엄과 열살 짜리 아들 토미가 마중 나와 클랙혼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두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윌리엄의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 엄마와 예쁜 딸아이 세 명도 클랙혼 씨를 반겨주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 끝날 무렵, 윌리엄은 토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토미야, 아빠는 내일 일 때문에 바쁘니까, 네가 클랙혼 삼촌께 아기 물개를 보여드리렴.” 아기 물개라니? 궁금해하는 클랙혼 씨에게 토미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바위에 얼마 전부터 물개 새끼가 한 마리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엄마 물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동안 혼자 바위 위에 남아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클랙혼 씨는 얼른 물개를 만나고 싶었다.

다음 날, 토미와 클랙혼 씨는 작은 배에 올라 노를 저어가며 바다로 나갔다. 해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반쯤 바다에 묻힌 작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그 위에 아주 조그맣고 하얀 아기 물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노 젓는 소리가 나자 아기 물개는 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커다랗고 짙은 눈으로 토미와 클랙혼 씨를 바라보았다. 햇볕에 털을 말리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쉬고 있는 그 작은 물개를 보면서, 클랙혼 씨는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혼자 사는 외로운 남자와 엄마를 잃은 아기 물개의 만남, 서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따뜻한 이야기

다음 일주일 동안 클랙혼 씨는 윌리엄의 가족과 함께 낚시, 해수욕 등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토미와 함께 보트를 타고 아기 물개를 보러 갔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처럼 바위 위에 홀로 누워 있는 아기 물개가 왠지 기력도 없고 평소보다 몸이 훌쩍해진 모습으로 변해 있어서 클랙혼 씨는 깜짝 놀랐다. 늘 통통하고 건강한 모습이라 건강을 걱정한 적은 없었는데 그 날은 분명 뭔가 달랐다. 집에 돌아와 윌리엄에게 이야기했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돌아왔다. 며칠 전에 어떤 남녀가 밤에 해변에서 총으로 물개를 몇 마리 잡았는데, 아기 물개의 엄마가 그 때 죽은 물개 중 한 마리일지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랬지만, 하루 뒤 다시 만나러 간 아기 물개는 훨씬 더 말라 있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클랙혼 씨와 토미가 탄 보트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 힘껏 울어대기 시작했다. 결국 클랙혼 씨는 큰 결심을 한다. 이 불쌍한 아기 물개를 집에 데려가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뒷일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물개를 데리고 기차에 올라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온 클랙혼 씨. 가뜰이나 평소 애완동물은 고양이든 새든 강아지든 절대 못 키우게 하는 아파트 관리인을 비롯해 수많은 장애물과 골칫거리가 클랙혼 씨를 기다리고 있다. 엄마를 잃은 아기 물개에게 ‘찰리’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클랙혼 씨는 과연 물개와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연히 서로를 만난 물개와 클랙혼 씨가 서로의 행복을 찾아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작가가 직접 연필로 그린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저자 소개>

주디스 커(Judith Kerr)는 유명한 독일 작가의 딸로 태어나 나치 정권 시절 영국으로 도망을 가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림책 『간식을 먹으러 온 호랑이』는 45년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외 『깜박깜박 잘 잊어버리는 고양이 모그』, 『When Hitler Stole Pink Rabbit』 등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제목 : MONSTER

가제 : 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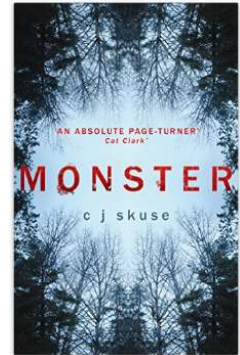
저자 : C.J. Skuse

출판사: MIRA Ink

발행일: 2015년 9월 2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상한 동물,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괴물과 눈보라 속에 고립된 소녀들

영국의 유서 깊은 여학생 기숙학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에 대대로 악명 높은 ‘괴물’이 학교 밖을 어슬렁거린다. 바깥에 도움을 청할 방법이 모두 두절된 소녀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망 있는 학교, ‘바토리 기숙학교’에 다니는 네쉬는 학교 대표학생으로 선발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물론 그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은 무수히 많고, 앞에서 친근하게 굴지만 이기기 위해 언제 뒤에서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못된 아이들도 많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나마 네쉬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매기가 있지만, 매기는 어떻게든 학교에서 벗어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엄격한 학교 규칙을 모조리 어긴 매기 때문에 네쉬를 비롯한 전교생은 세상과 이어주던 인터넷과 휴대전화마저 못 쓰게 된다. 게다가 네쉬의 집에도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 남은 기간 동안 남미로 여행을 떠난 오빠가 여행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네쉬는 학교 사무실에서 공중전화로 겨우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오빠를 찾으러 부모님이 남미로 떠나는 바람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에도 못 가고 학교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오빠에 대한 걱정과 함께 네쉬를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넷볼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숲 속에 들어갔던 네쉬는 뭔가 아주 커다랗고 누리끼리한 눈 두 개와 마주친 것이다. 잘못 본 거라고, 겁이 나서 상상한 것이겠거니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혹시 이 학교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의 ‘바토리 괴물’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고양이와 비슷한 모습, 덩치가 무시무시하게 크다는 그 괴생물체는 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관광객이나 학생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시간은 흘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집으로 하나 둘 떠났지만 네쉬를 포함한 몇몇 소녀들은 학교에 남아 있었다. 부모님이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매기도 학교에 남고, 서슴없이 반항을 일삼는 다이애나와 아침 실력에는 따를 자가 없는 클래리스, 학교 최고의 말썽쟁이 리건, 갓난아기마냥 겁도 많고 아무 것도 혼자 못하는 태비까지 어쩌다 보니 ‘부적응자’들만 학교에 남게 됐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전기도, 인터넷도 모두 두절된 학교에 갇힌 아이들과 이를 지켜보는 의문의 괴물

갑자기 기록적인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도로가 막혀버린 것은 물론이고 전기마저 끊기고 만다. 학교가 통째로 세상과 고립되고 만 것이다. 인터넷도 안 되고, 휴대전화는 없고, 구조 연락을 할 수도 구조를 받을 수도 없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여학생 한 명이 실종된다. 양호 선생님은 수색대를 조직해서 소녀를 찾아 나서지만, 급기야 양호 선생님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눈보라는 멎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네쉬와 친구들은 엄청난 몸집을 가진 시커먼 동물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괴물은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는 걸까? 아니면 사실 학교 안에서 항상 몸을 숨긴 채 학생들이 가까이 지내면서 당당히 모습을 드러낼 순간만을 기다려온 것일까? 괴물이 학교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네쉬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이 학교의 대표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위해, 남은 학생들을 위해 괴물을 처단하기로 결심한 네쉬. 실체를 알 수 없는 괴물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저자 소개>

C.J 스쿠스(C.J Skuse)는 YA 소설 『Pretty Bad Thing』, 『Rockoholic』 등을 쓴 작가로 배스스파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했다.